

<2010년 8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주님께 약속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신앙의 선조나 혈통의 선조가 조건을 세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에 그를 따르게 되면 그와 같이 얻게 되어 같이 쓰게 되는 것이다.
2.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중심자와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을 얻었기에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것이다.
3. 현재에 우리가 주님께 받고 얻는 것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조건을 세우고 따르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받았어도 가치 있게 제대로 주님과 함께 쓸 수 있다.
4.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조건을 세우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받으니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받고 쓰면서도 가치 없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선조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갔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것을 네 자손들이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이다. 고로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배워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신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조상들이 쓰던 귀한 유적품을 발견하는 격이다.
5. 현재 우리에게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 후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